

이종학 광산세무서장 명예퇴임 “선후배 배려와 헌신에 감사”

32년간 공직생활 마무리

“32년간 공직생활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희생과 배려를 해준 선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명예퇴임한 이종학(사진) 광산세무서장은 2일 “늘 겸손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국세청이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납세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연재가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 명예롭게 떠날 수 있어 더없는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순 출신으로 여수고·세무대학을 졸업한 이 서장은 1991년 3월 공직에 입문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법안납세과장, 조사1국 1과장, 나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이지만,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과 끊임없이 주변을 보살피는 배려심으로 2011년 상반기 국세청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광산세무서장으로 부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공직사회에서 신

체적 결합을 맺고 한 기관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그 자리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없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저를 따뜻한 국세공무원으로, 한 기관의 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국세청과 신체적 결합을 맺고 늘 배려와 도움을 준 동료들 덕분에”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 서장은 퇴임 후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한길세무협동’ 사무실을 내고 세무사로 새 출발에 나선다. 오랜 세무행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종학 서장은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도 겸손과 정직함을 잃지 않고 지역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용기를 내 곁까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고흥·목포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전달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선출)은 최근 고흥과 목포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화장지, 샴푸, 바디워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인재발달센터 전남문화재단과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 임직원들이 매년 시설을 방문해 청소, 문화공연, 김장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이 후로는 생필품 전달로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2022 교통대상 시상식 개최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회장 조정래, 이하 광교협)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삼지구 삼삼1급 정비 3층 광교협 사무실에서 조정래 광교협 회장,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광주교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교통대상’에 이장준 전)개인택시 이사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 표창에 (합)울로운수 임창섭씨 외

13명, ‘광교협회장표창’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병호씨 외 12명을 선정·표창했다. 또한 광교협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정래 광교협 회장은 광주광역시 13개 교통단체 8만여회원 가족들의 교통발전에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 격려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사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보

▲강덕원 총무과장 ▲박정준 선거과장 ▲김태균 지도과장 ▲정대성 동구선관위 사무국장 ▲김철완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 ▲송권석 북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보

▲황수현 홍보과장 ▲황순기 총무과장 ▲박정기 선거과장 ▲이민철 지도과 지도담당관 ▲정영찬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현 총무담당관 ▲허열 선거담당관 ▲김태희 지도과 광역조사팀장 ▲정민호 지도과 광역조사팀장 ▲장정현 화순군 선관위 사무과장 ▲박희관 함평군 선관위 사무과장

◆광주은행

◇부행장(보) 전보

▲김인수 경영지원본부 및 자산관리본부 ▲김용규 경영기획본부 및 자금시장본부 ▲정일선 데이터전략본부 ▲이우경 마케팅본부 ▲조계준 수도권영업본부 ▲박성우 영업1본부 ▲김재춘 준법감시인

◆광주대학교

◇보직

▲김경태 대외협력처장 ▲송창영 대외협력처 부처장

충장로 희망나눔실천단, 돌봄 어르신 이·미용 봉사



광주시 동구 충장동 희망나눔실천단은 최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동구 돌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이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킴지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이모집 찰스(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1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스타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맹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둘레길	<지중해 오디세이, 튀니지 -그토록 꿈꾸던 오아시스>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새날, 길을 묻다 2부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음 12월 12일 辛酉)

<p>36년생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48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수박에 엮는다. 60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72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84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96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6, 79</p>	<p>42년생 사려 깊은 성찰 속에 해안이 열리게 될 것이다. 54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변화가 대단히 크다. 66년생 호기가 주어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지금은 분명한 행적을 갖추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90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02년생 양호한 판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44, 99</p>
<p>37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 49년생 안정세를 굳히게 되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61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73년생 오랜 세월 동안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85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97년생 분산한다면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12, 52</p>	<p>43년생 확대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자. 55년생 절호의 찬스를 잘 활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6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91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루가 될 수도 있겠다. 03년생 생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89</p>
<p>38년생 귀한 육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50년생 발 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62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가 자를 수도 있어야겠다. 74년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86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98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4, 82</p>	<p>44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56년생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숲수번만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68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80년생 해박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아예 포기해라. 92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재물이 생길 수 있나. 04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0</p>
<p>39년생 초기의 의도에서 빗나간다면 뒤달이 생길 것이다. 51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63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75년생 제 목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87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99년생 명명 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46, 73</p>	<p>45년생 부자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57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9년생 애초의 상황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81년생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93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한다. 05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행운의 숫자 : 29, 86</p>
<p>40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52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나. 64년생 은 힘을 기울이면 목표하여 왔던 바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 76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88년생 한 순간에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는 동세이다. 00년생 기만이 조성되겠다. 행운의 숫자 : 35, 69</p>	<p>34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를 상징하므로 먼 안목으로 보라. 46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58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70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82년생 전진이 있으리라. 94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4, 61</p>
<p>41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3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65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이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77년생 실행해 두고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축진제가 될 수도 있다. 89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 수 있다. 01년생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34, 91</p>	<p>35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47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있따라 일어날 것이다. 59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71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83년생 한계면에 허하면 힘들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31, 90</p>